

영감으로 만드는 아름답고 튼튼한 책

예술장정 제본가 백순덕씨의 책만들기



중세의 책들은 아름답고 튼튼한 제본과 장정으로 수백년을 이어왔다. 책이 흔치 않아 보관에 공을 들였다. 인쇄·제본술의 발달로 책이 흔해지자 책의 목숨도 점점 짧아졌다. 그뿐인가, 내용까지 무책임해졌다. 렉토 베르소를 연 백순덕씨(35)는 몇대를 몰릴 '세상에 단 한권뿐인 책'을 만든다.

"책은 문화입니다. 제본할 때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영감을 얻는 것은 제본이 단지 사치스러운 치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책이 좋아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가 UCAD에서 예술제본을 배우게 됐다. 엄격한 훈련과정이 힘든 유학생생활이었지만 가까이 책의 평생 노예가 되기로 했고, 까다로운 시험에 재수까지 해서 '느리외르(예술장정전문가)'가 되었다.

"외출했다가 비라도 오면 작업실에 놓아둔 종이들이 걱정돼 서둘러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 건사는 어렵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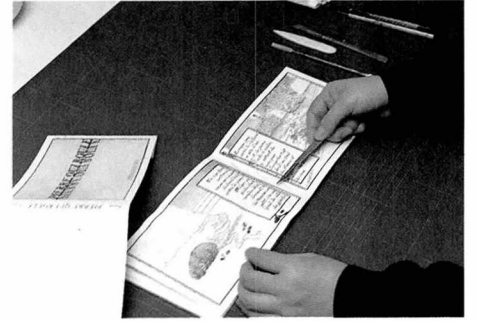
백순덕씨가 결혼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람들은 1권 장정에 40만~1백 50만원이러는데 놀라지만 책을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몇백년을 이어갈 문화로 여기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다. 명색이 예술가지만 칼 등 작업도구 때문에 그의 손은 곧잘 상처 투성이가 된다.

"손톱도 못 길러요, 가족이 긁힐까봐. 귀국하고 나서 손톱을 좀 길렀는데 이제 깎아야죠"

요즘엔 5월 전시회를 목표로 이청준·김병익·최윤·박완서·황순원 등의 책을 제본하느라 쉴 틈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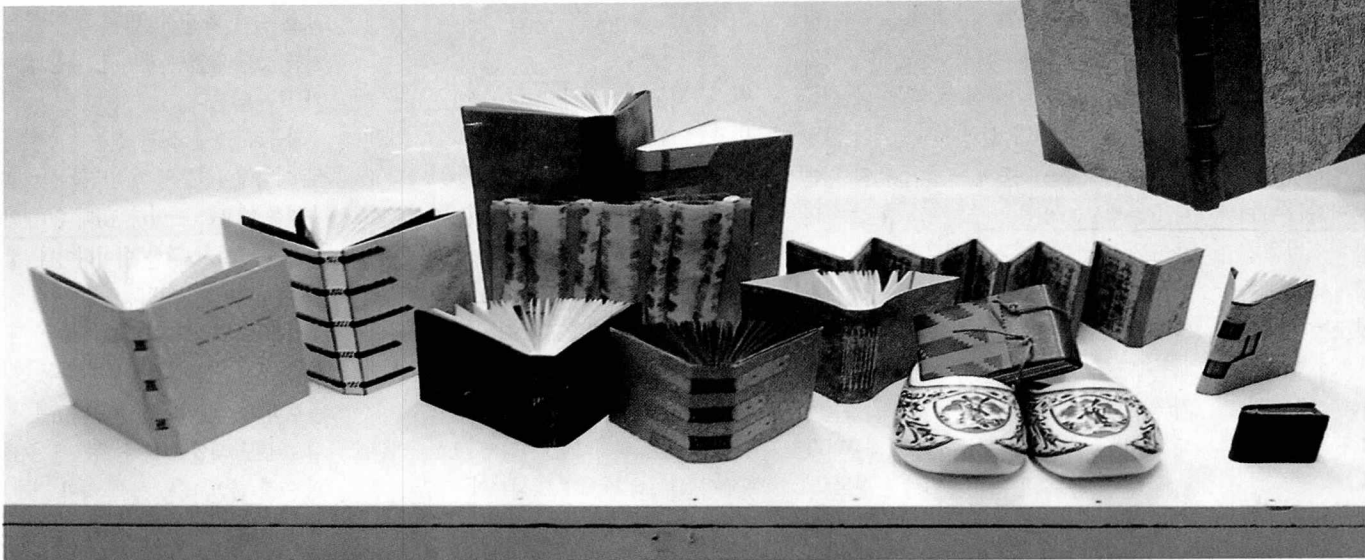
- 이현주 기자

글자를 새겨넣기 위한 도구. 글자틀에 알파벳 하나하나씩 끼우고 옆에 달군 후 금종이나 원하는 색상의 섹테이프를 대고 눌러 문양이나 글자를 새겨넣는다. 예술가의 방이지만 이밖에도 톱, 프레스기, 크고 작은 칼, 작두, 책을 눌러둘 때 사용하는 쇠덩어리들이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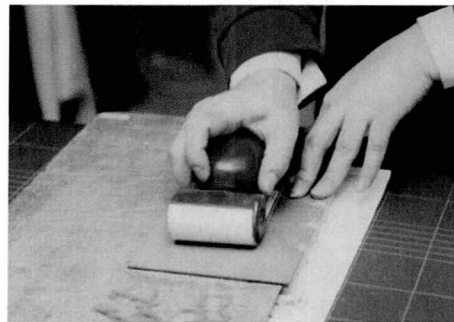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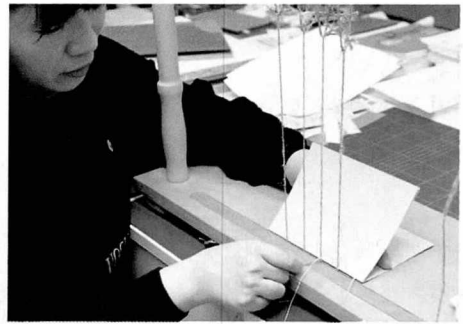


제본과정

- 책뜯기**
유선제본된 책을 묶음으로 뜯어놓는다. 책을 나눌 때는 원래 있던 책등, 날개 등 책을 구성한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 눌러두기**
나무판 사이사이에 적당하게 나눠 쪼개어 눌러둔다.
- 가장자리 정리**
들쭉날쭉한 책 가장자리를 칼로 잘라 가지런히 정리한다.
- 깨매기**
책을 엮기 위해 적당한 간격으로 톱으로 구멍을 낸 후 굵은 노끈을 뚫어 놓은 구멍에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펜 바늘로 분철된 것들을 엮어준다
- 연결하기**
책등을 망치로 두드려 굴리고 성긴 천을 붙인 후 표지가 될 판지에 구멍을 뚫어 노끈으로 연결한다. 안쪽으로 들어간 노끈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잘 다듬는다.
- 사포로 문지르기**
표지가 될 판지의 가장자리를 사선으로 오려내고 표지 전체가 고르고 반듯하도록 사포로 문지른다. 원래 두께의 반이 안될 정도로 얇게 만들어야 하는데, 파란 종이먼지가 하루종일 날린다. 코를 풀면 푸른 코가 나올 정도.
- 표지장식**
책등과 모서리에 붙일 가죽은 안쪽으로 들어가 붙는 부분을 얇게 벗겨내고, 이것을 책등에 붙이는데, 모서리를 할 경우 모서리에도 맨다. 표지 앞면에 어울리는 종이를 붙이고, 표지 안쪽에도 종이를 붙인다.



시대에 따라 책 장정도 바뀐다. 종이와 실, 가죽의 결합을 살린 이태리식 장정은 현대적이다. 가장 가운데 있는 연두색 책은 니폴거리의 가죽과 책 등의 단추에 실로 달아 매달아 놓을 수 있게 만들었다. 독특한 장식으로 UCAD의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책은 베희시장에서 구입한 책오양 성냥.



프랑스에서 만든 예술장정의 책으로 꾸민 백순덕씨의 장식장. 금박 등을 사용해 화려하게 장식한 로맨틱 양식의 표지장정이 있는가 하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각기 다른 색의 가죽을 오려붙여 만든 현대적인 스타일의 책도 보인다. 오른쪽 책장 맨 윗칸의 푸른 책은 가죽을 무두질해 그 결이 살아나도록 한 후 붙여 만든 장정으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